

# “농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시설자금 지원 적극 건의할 것”

— 최영열 회장, 양돈현장 생산성 위기 지적



◀ 지난 1월 3일 양돈 협회에서 최영열 회장은 양돈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를 통해 소모성질환 해결 방안에 대한 새해 구상을 밝혔다.

(사)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1월 3일 협회 회장실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돈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양돈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소모성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.

## ▣ 정부, 양돈장 생산성 저하 심각성 인식해야

최영열 회장은 “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모성질환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그 결과 도축마리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”며 “연초부터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농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자금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.

최 회장은 “돼지 사육규모를 현재 약 930만마리로 볼 때 정상적 수준의 모돈회전율, 이유두수 등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1900만두의 돼지가 출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1300만두 밖에 출하되지 못

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지난해 6백여만두의 손실이 발생한 것"으로 추정하며, "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도 최대 1조원을 육박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최영열 회장은 "돼지 소모성질환에 따른 손실액이 국가적 '이슈'가 될 규모"라며 "하지만 정부에서는 고돈가 추세에 쫓겨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"고 지적했다. 따라서 돼지소모성질환 해소를 위한 양돈장 환경개선 대책을 범업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양돈농가가 시설개선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

최 회장은 이를 위해 연차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되 예산이 부담된다면 피해가 심한 농가부터 선정,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양돈산업은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요구가 관철되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.

### ▣ 생산성 향상 위해서는 시설자금 지원 반드시 필요

또한 최 회장은 소모성질환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최 회장은 "지난 해 말 농지법이 개정되어 올 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지에 축사가 진입할 수 있을 것"으로 전망하며, "이제는 정부의 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양돈장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소모성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최영열 회장은 양돈자조금 사업과 관련, "자조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은 지나야 소기의 성과들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므로, 조급하지 않고 매 해 사업마다 피드백을 실시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공동처리장을 건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을 추경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면, 지역 양돈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북 경주지역처럼 오히려 가축분뇨 액비가 부족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. 최 회장은 경주를 비롯해 전남 영광, 무안, 나주, 경기 김포, 여주, 이천 등지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.

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"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게 양돈인들의 주문인 만큼 지난 3년간 펼쳐온 사업을 직접 마무리,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 싶다"고 밝히고 "소모성질환 극복과 가축분뇨 자원화가 잘 이뤄지는 지역과 기관을 연계해 서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겠다"며 오는 2월초 치러질 예정인 회장 경선에 재출마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. **양돈**